

백두관 식당 정·특식 300원씩 인상

매년 오르는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어쩔 수 없는 인상
식사의 질을 유지 하기 위한 최후의 마지노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위해 노력...학생들의 양해 바래

아라캠퍼스 백두관(학생회관)식당의 식비가 2월 인상됐다. 기존 2200원이던 정식이 2500원으로, 3500원이던 특식은 3800원으로 각각 300원의 인상안이 확정됐다. 인상율은 약 11.2%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김희철 학생처장 이하 생협)은 지속적인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어쩔 수 없는 인상이라고 밝혔다.

인상이유는 학내구성원의 급식만족도 제고와 원가상승에 따른 식사품질 유지, 식단이 현실화와 운영개선, 지속적인 물가 인상에 따른 급식원가 상승이다.

2015년 백두관 식당은 약 9천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는 작년보다 약 600만원 적은 금액이지만 여전히 생협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채소, 축산물 등의 식 재료비는 평균 약 10%정도가 인상됐고 직원들의 인건비 또한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인해 약 22%정도 증가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특식의 원가는 약 3800원이고 정식은 약 2400원이다.

황우화 생협 사무국장은 “현재 나오는 식사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다”며 “식당에 필요한 물품들의 인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식당운영을 위해서는 식비인상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비중을 뒀다”며 “학생들의 불만사항도 이해하지만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학생식당의 가격이 오르자 식당의 주고객인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심소연(인문홍보학과 2)씨는 “가격이 오른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안타깝다”며 “하지만 식사의 가격이 오르면 반찬도 많아지고 메뉴도 다양해지는 등 서비스가 더 좋아졌다”고 말했다.

반면 김보훈(토목공학과 2)씨는 “특식이 3800원인 것은 조금 비싸다고 생각한다”며 “매년 조금씩 백두관식당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협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질의 식사 제공으로 만족을 극대화시키고 식사 공간 외에 행사와 휴게공간의 기능을 갖춘 환경개선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구성원들이 원하는 메뉴를 반영하는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백두관 식당은 3월 4일을 끝으로 조

식을 폐지했다. 하루평균 이용자의 수가 40명이 되지 않는 등 학생들의 수요가 적었고 식사준비를 위해 오전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라고 생협 측은 밝혔다.

김해건 기자

교수회관 식당 2일 오픈

3월 2일 교수회관 식당이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교수회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된 교수회관 개업식은 생협사무국장의 경과보고, 식당운영인내와 허향진 총장의 축사로 진행됐다.

앞으로 생협이 운영할 교수회관 식당은 조식부터 중식, 석식시간까지 운영된다. 메뉴로는 고기국수, 비빔국수, 파로국밥 등이 운영된다. 가격대는 4500~6000원 정도이다. 모든 메뉴는 포장이 가능하며 서빙 서비스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백두관 식당에서 중단됐던 조식은 앞으로 교수회관 식당에서 준비된다. 가격은 3000원이며 메뉴로는 우거지해장국, 김치찌개 등이 구성된다.

황우화 생협사무국장은 “교수회관 식당이 새롭게 단장했으니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해건 기자



2일부터 학생회관에서 진행된 동아리 홍보기간을 통해 학생들이 스피래쉬 동아리에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고 있다.

김해건 기자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유치 나선다

先취업 後진학 활성화 위해... 전국에서 8개 대학 선정

고졸취업자나 평생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부의 평생교육단과대학 신설 지원 사업에 제주대가 3월 2일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기획처(처장 양덕순 행정학과 교수)에 따르면 이날 2016년도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를 평가 주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2월 12일 2016년 제1차 구조개혁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따른 25명 이상 학과 일괄 1명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학생정원조정 계획안을 원안 통과했다. 이에 따라 2월 22일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정원조정 계획 및 사업계획 추진보고회를 가졌으며, 2월 23일 학무회와 2월 25일 평의회를 심의통과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30일 확정발표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은 선취업후진학자나 평생학습자 친화적인 평생교육단과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내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조직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참여 대학들은 평생학습자 맞춤형 학칙 및 규정 제·개정을 통해 대학 부설로 운영되는 평생교육원의 학점인정과정 등을 평생교육 단과대학으로 통합·운영하고 전담 조직원과 전임교원의 강의비용을 해당 대학의 평균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학위과정은

지역 수요조사 등을 통해 5개 안팎의 학과·전공으로 마련하고 정원내 60명, 정원외 140명 등 총 200여 명 규모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학사관리와 수업방식을 평생학습자 맞춤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학기별 이수학점 제한을 완화했고 야간·주말과정, 특정기간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는 집중이수제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해도 된다. 학교 밖 시설에서 수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점인정과정 수업도 강의시수로 인정해 평생교육과정에 전임교원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단과대학의 평생학습자 모집정원은 대학 구조개혁 2주기 감축분에 한해 인정된다. 각종 대학평가에서 총원율과 취업률을 산정할 때 평생학습자 수를 제외해 후진학 체제로 전환하는 대학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운영 대학은 수도권을 포함한 5개 권역으로 구분해 수도권은 3~4곳, 비수도권은 권역별로 1~2곳을 선정하며 8곳에 35억 원씩 1년간 총 300억 원을 투입한다.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은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프라임)사업, 대학인문역량강화(코어)사업과 함께 교육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기획평가과 관계자는 “성인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사업을 진행하고 있

다”며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성인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해건 기자

CK사업단 동계 실습

제주대 아열대농생명융복합산업 인재양성사업단은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2015 동계 마이스터 실습’을 운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실습은 참여학과 학생들이 현장에서 마이스터급의 전문가에게 직접 지도 및 교육을 받아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김이래 기자

사령

취재보도부장 김해건(정치외교학과 3)
편집국장에 임명함
윤미래(국어국문학과 4)
정기자에 임명
강소현(초등교육전공 3)
홍진혁(인문홍보학과 2)
수습기자에 임명
편집국장 백승규(인문홍보학과 4)
특별기자에 임명함
이상 3월 1일자

제주대신문

국가고시 올해도 강세

간호대 4년연속 100% 합격

교육대 초등임용 82%합격

올해도 제주대 학생들이 각종 국가시험에서 강세를 보였다.

간호대학(학장 박은옥 간호학과 교수)은 한국보건간호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한 제55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졸업생 68명 전원이 합격, 4년 연속 합격률 100%라는 영광을 안았다.

교육대학(학장 정광준 초등사회과 교수)은 올해 전국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128명이 응시, 105명이 합격해 82.03%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수의과대학(학장 이경갑 수의학과 교수)은 2016년도 제60회 수의사국가고시에서 졸업생 48명 중 45명이 합격해 93.75%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의학전문대학원(원장 주승재 의학과 교수)은 1월 21일 최종 발표된 2015년도 제79회 의사국가고시에서 37명 중 35명이 합격, 94.60%의 합격률을 달성했다.

사범대학(학장 오홍식 생물교육 전공교수)은 201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4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홍진혁 기자

201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공채

201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공채를 통해 7개 학과 13명의 교수가 새롭게 임용됐다. 이번 교수 공채에는 65명이 지원해 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사범대학의 국어교육과에 31명이 지원해 31:1의 경쟁률을 보였다. 관련기사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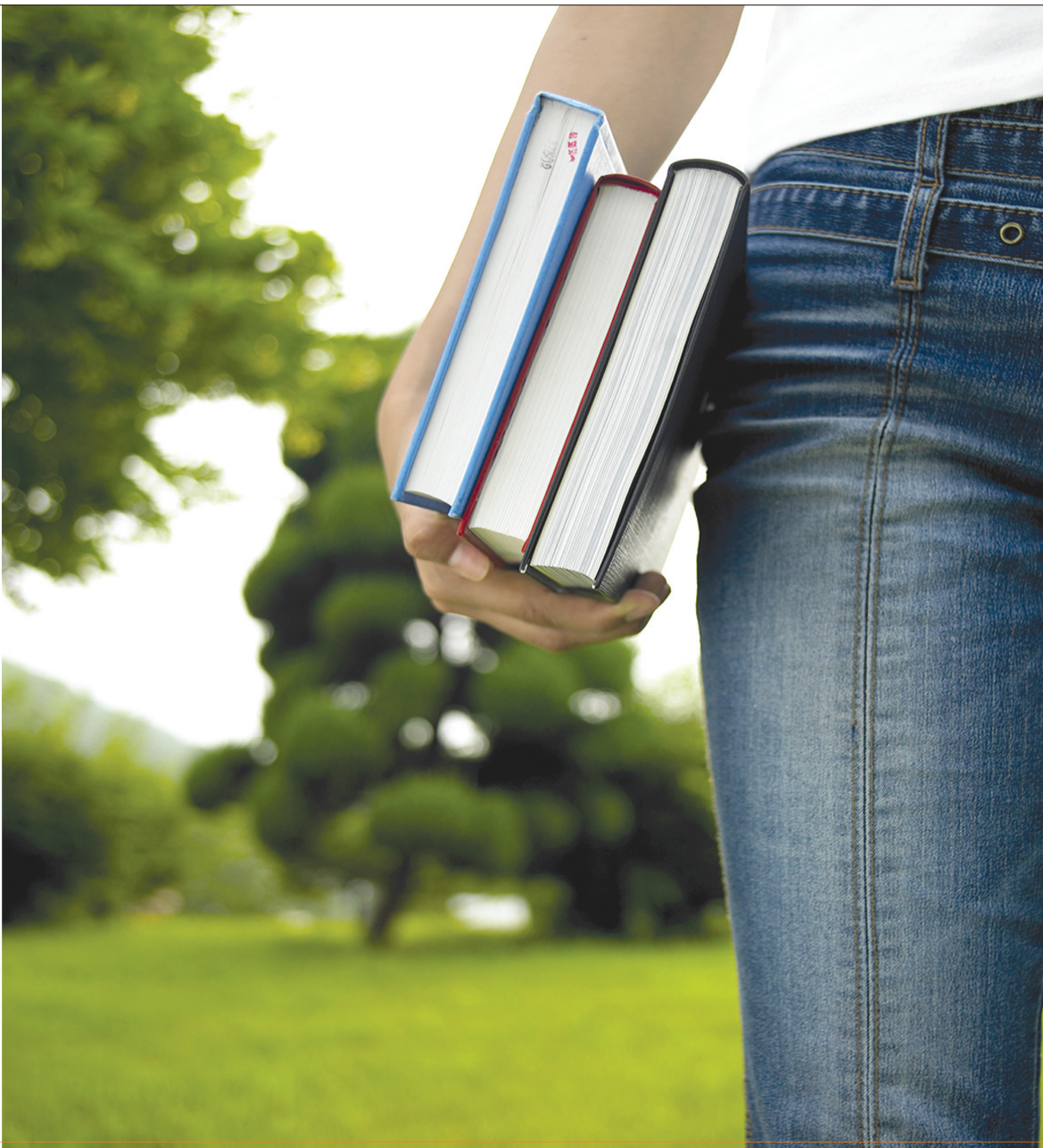
◇신임교원 노대원(국어교육과), 도경탁(생명공학부), 김영아(간호학과), 김진일(간호학과), 김대경(법학과), 장보근(의학과), 김현정(의학과), 전명현(법학과), 박은정(의학과), 진상욱(의학과), 강현식(의학과), 송성욱(의학과), 고명주(의학과)

김해건 기자

제주지역
신뢰도 1위! · 발행부수 1위!!

리얼미터 전국지방신문 여론조사 · 2015년도 한국ABC협회 인증

제주의 대표신문 한라일보가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대학 최초 여성 ROTC 장교 탄생

고은혜·임금빈 해군장교로 임관

제주대는 2월 19일 대학 체육관에서 2016년 학군사관후보생(ROTC) 수료 및 입단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수료생은 해군 29명, 해병 34명이며 입단자는 해군 19명, 해병 21명이다. 해군 수료생 중 고은혜(무역학과)·임금빈(관광개발학과)씨는 오는 3월 제주대 최초 여성 ROTC 장교로 임관한다. 이들은 지난 2014년 2월 제주대 최초 여성 ROTC로 입단해 2년간의 후보생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으며 이 중 고은혜씨는 해군참모총장상을 받았다. 고은혜씨는 “해군 창시자인 손원일 제독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나라 바다를 사수하는 멋진 여군 장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해군 수료생 중 고은혜(무역학과·왼쪽) 임금빈(관광개발학과)씨가 경례를 하고 있다.

임금빈씨는 “열심히 해서 남자 장교에 뒤처지지 않고 남자보다 더 뛰어난 장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료생 중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상=강경범(전산통계학과) △합참의장상=이기협(행정학과) △참모총장상=고은혜(무역학과) △해병대사령관상 =이범수(체육학과)·고수완(화학학과) △교육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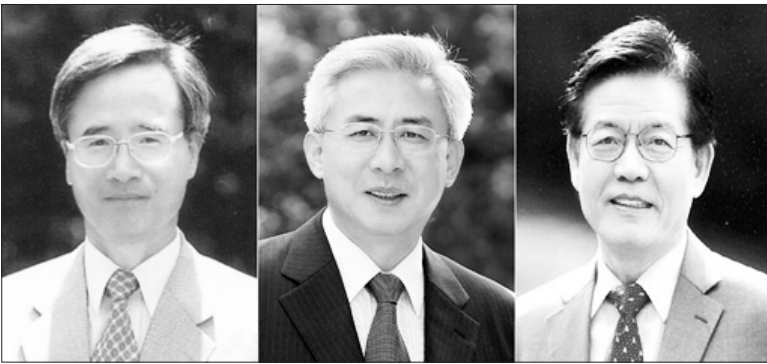
령관상=김승욱(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제1교육단장상 =김성현(레저스포츠학과) △학군단장상=김진규(체육학과).

김해건 기자

김태곤 교수 등 6명 30여년 재직 마치고 정년퇴임

2월 29일 퇴임식 거행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힘쓰다 정년을 맞이한 교수들의 퇴임식이 2월 29일 아라리움홀에서 열렸다. 이날 정년퇴임한 교수는 △국어교육과 김태곤, 문성숙, 안성수 교수 △윤리교육과 고성준 교수 △생명공학부 강민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한삼인 교수 등 총 6명이다. 허창진 총장은 “교수님들께서는 비록 교육현장의 일선에서는 떠나시지만 앞으로도 깊은 학식과 높은 인품의 향기를 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대학이 가는 길도 밝혀주시고 엄하면서도 따뜻한 질책과 격려도 보내달라”고 감사의 말을 했다. 퇴임식에는 교직원과 재학생, 퇴임교수 가족들이 참석했다. 김태곤 교수는 1984년 제주대와 인연을 맺어 출판부장 등을 역임했다. ‘중세국어 다의어와 어휘 변천’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문성숙 교수는 1987년 제주대에 부임하여 인연을 맺어 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대문학사와 현대작가론, 현대희곡론 등을 펴냈다. 안성수 교수는 1987년 제주대와 인연을 맺어 평생교육원장 등을 역임



왼쪽위 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태곤, 문성숙, 안성수, 한삼인, 강민수, 고성준 교수님



왼쪽위 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태곤, 문성숙, 안성수, 한삼인, 강민수, 고성준 교수님

했다. 5권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 60여 편의 수필평론을 발표해 한국 수필시학 정립에 초석을 쌓았다. 고성준 교수는 1978년 제주대에 부임하여 인연을 맺어 평화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주체사상과 북한사회주의’ 등 저서와 다수의 ‘통일관련 논문 및 연구용역’ 등을 수행했다. 강민수 교수는 1982년 제주대와

인연을 맺어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초대소장 등을 역임했다. 제주도 문화상, 한국산업기술원장상 등을 수상했다. 한삼인 교수는 1983년 제주대와 인연을 맺어 사법시험 출제위원 등을 역임했다. 20권의 저서와 12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으며 제주도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김해건 기자

도내 최초 생체 간이식 수술 성공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강성하) 외과 김영규 교수팀이 2월 26일 도내 최초로 생체 간이식 수술에 성공해 이식수술의 신기원을 열었다. 제주대병원에 따르면 간이식 수술을 받은 박모(34)씨는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증의 합병증인 위경막류에 따른 심각한 토혈(소화관 내에서

대량의 출혈이 발생해 피를 토하는 경우)로 입원 치료 중에 간세포암으로 진단됐다. 심한 간경변증으로 인해 간 이식외에는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외종 사촌인 공여자의 간기증으로 이번 수술이 시행될 수 있었다. 생체간이식술은 기술적으로 난이

도가 높을뿐 아니라 건강한 공여자의 건강을 해치는 합병증을 최소하도록 공여자 간절제술을 해야한다는 부담감이 매우 커 대부분 서울 대형병원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김영규 교수는 “서울 대형병원에서만 시행되는 생체 간이식이 제주대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은 간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 장비뿐만 아니라 진료 역량이 서울의 대형병원 못지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이래 기자

멘사코리아 특별 입회 테스트 시행

16일 국제교류회관에서 진행 16년만에 제주에서 실행

2000년 이후 제주에서 맥이 끊겼던 멘사 입회 테스트가 3월 19일 16년만에 실시된다. 장소는 국제교류회관 제3세미나실이다. 멘사코리아 관계자는 “일정 회원수 이상이 확보된다면 해당 지역에 멘사 지회가 설립된다”며 “이번 테스트를 계기로 제주도에도 자체적 지회가 설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해건 기자

응시자격은 테스트 당일 기준 만 14세 이상 국내 거주인이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멘사테스트 응시동의서’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은 멘사코리아 홈페이지(www.mensakorea.org)를 통해 가능하다. 선착순 40명이며 응시료는 4만원이다. 한편 멘사(MENSA)는 1946년 창립된 세계 100개국 이상에 11만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국제적 고지능자 모임이다. 한국멘사는 1998년 창립총회 개최 후 현재까지 회원들 간의 지적 상호교류와 지역사회 참여 등을 위해 활동 중이다. 김해건 기자

거점국립대 교수연합회 상임회장 선출

김철수(전산통계학과 교수) 교수회장은 2월 24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 거점국립대학교교수회 연합(약칭 ‘거국련’) 정기총회에서 상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6년 3월 1일부터 1년이다. 김 교수는 제주대 수학교육과를 졸업, 연세대 대학원에서 이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교수는 전산정보위원장, 자연과학대학장을 역임했다. 또한 대학평의회 의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거국련은 제주대를 비롯해 경북대·부산대 등 전국의 9개 거점국립대 교수회가 연합해 대학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의 발전, 공교육의 회복, 거점국립대의 명문대로의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교수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김이래 기자

김민철·염미경 교수 우수평가자 선정

경영정보학과 김민철 교수와 사회교육학과 염미경 교수가 한국연구재단 2015 인문사회분야 학술지 원사업 평가에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평가자로 선정됐다. 한국연구재단은 2015년도 학술인문사회사업 평가에 참여한 심사자 중 심사의 전문성, 성실한 평가의견 작성, 평가회의 적극 참여 등을 기준으로 사회과학단 법정보정평가 및 사회과학분야에서 각각 총 10명을 우수평가자로 선정했다. 한국연구재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우수평가자를 선정해 인종하고 있다. 김이래 기자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상호협력 협약

제주대와 국가핵융합연구소(소장 김기만)은 3일 제주대에서 플라즈마-농식품 융합기술 연구 개발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플라즈마-농식품 융합기술 공동 연구사업 발굴 및 추진, 포럼·심포지엄·워크숍 공동 개최, 연구 인력 교류, 시설·장비 등의 공동 활용, 학술·기술·정보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 자문단 및 기획단을 운영키로 했다. 국가핵융합연구소는 한국형 핵융합로 건설과 핵융합에너지 사용화 기술 개발을 위해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미래 녹색에너지원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선도하는 국내 유일의 핵융합 전문 연구기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핵융합연구장치인 KSTAR(케이스타)를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 현재 이를 세계 핵융합 공동 연구장치로 운영하며 핵융합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과 우수한 핵융합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김이래 기자

거점대 총장협의회 열려

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윤여포 충북대 총장)는 2월 19일 제주대에서 201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라저널 공동 구역을 위한 도서관 공동 네트워크망 구축 △공동실험실습관 기자재 구입 및 교체 사업비 추가 지원 △민간투자시설(BTL)에서 운영중인 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세 방안이 논의됐다. 또 △거점국립대학 문화·체육리 그 정례화 △정부기관 용역 간접비 정수율 중대 방안 △장학금 제도 및 운영 개선 등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졌다. 거점국립대 회원대학은 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10개교다. 김이래 기자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창진

편집인·주간 김치환

편집국장 김해건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ac.kr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주말교육가능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시인·소설가 등용문” 제36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62주년을 맞이하여,
제36회 백록문학상을 현상 공모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 응모분야 : 시(1인 5편 이상) 또는 소설(1인 1편)
- 접수마감일시 : 2016년 5월 25일(수) 18:00까지
-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백록문학상 응모시 출력 원고를 동시에 접수하며, 반드시 원본파일을 E-mail : press@jeju.ac.kr로 제출해야 함.
* 원본파일은 본인 이름과 학과 등의 파일명으로 제출바랍니다.
* 문의처 : 신문방송사 행정실 Tel. 754-2282
- 발표 : 제주대신문 955호(2016년 6월 8일(수) 발행 예정)
- 시상내역 : 시 당선작 - 상금 50만원 및 총장상
단편소설 당선작 - 상금 70만원 및 총장상

* 당선작이 없을 경우 기작을 선정할 수 있으며, 기작 상금은 당선 상금의 절반으로 함.

제주대신문

수의과대학 임윤규 교수팀(김재훈 교수, 김수연 선임연구원, 조종문·김민구·유영자 학생)이 최근 한국실험동물학회에서 주관하는 2016년도 동계 심포지엄에서 ‘우수 논문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논문 제목은 ‘Precision apiculture based on ubiquitous sensor technology’. IT분야의 불모지인 양봉분야에 IoT technology를 적용해 얻어낸 혁신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지원한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한국실험동물학회는 실험동물연구자들로 구성된 세계적인 권위의 학술단체로서, 생명과학분야의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교류를 목적으로 1985년도에 설립됐다. 김이래 기자

“이제 자랑스러운 제주대학생입니다”

신입생 학부 2270명, 대학원 657명

허향진 총장 “창조적으로 도전하라”

201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2월 25일 오전 10시 실내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에 입학한 학부 신입생은 모두 2270명이다.

허향진 총장은 입학식에서 “앞으로 보낼 대학생활이 여러분의 인생 경로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며 “꿈과 비전을 세우고 창조적으로 도전하라”고 말했다. 허 총장은 또한 “글로벌화와 융복합시대에 필요한 글로벌 역량을 갖추는 데 힘써야 하고 미래리더로서의 인성과 통찰력 그리고 통합능력을 갖고 닦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입생들은 선서를 통해 “학칙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학업에 정진해 대학의 명예를 드높이고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입학식에 앞서 총학생회(회장 강민우 환경공학과 4)는 ‘할망 하르방이 들려주는 제주 음식이야기’ 등 도서를 전달하며 힘차고 밝은 학교생활을 기원했다.

입학식이 끝난 후에는 각 단과대학별 신입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한편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비롯해 각 특수대학원에서도 외국인 학생을 포함해 총657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각 대학원별 신입생은 △일반대학원 262명 △교육대학원 151명 △경영대학원 58명 △행정대학원 31명 △산업대학원 25명 △통역대학원 26명 △사회교육대학원23명 △의



2월 25일 체육관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이은영(행정학과 1)학생이 새로운 대학생활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학전문대학원 37명 △법학전문대학원 44명 등이다.

한편 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진석)은 2월 26일 제주대병원 2층 대강

당에서 입학식을 가졌다.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상찬) 또한 3월 2일 대강당에서 입학식을 진행했다.

김해건 기자

“공지와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야”

2016학년도 입학식사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아시아의 명문, 세계의 중심 대학’을 목표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제주대학교의 새로운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자랑스러운 자녀를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해주신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오늘의 기쁨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개교 6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대학은 ‘가슴이 따뜻하고 글로벌교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대학은 질적·양적 성장을 함께 이뤄내면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국제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대학이 이뤄낸 값진 성과가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해줍니다. 지난해 우리대학은 거점국립대 취업률 1위,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 3년 연속 ‘매우 우수’ 등을 포함한 매우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같은 성과는 내실 있는 교육여건과 맞춤형 교육, 미래를 선도하는 초일류 연구역량,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구축,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스케일이 다른 비전과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제주대학교 모든 교직원들은 큰 꿈을 가진 여러분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더욱 열심히 될 것입니다.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학생이 중심이 되는 명문대학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역동적인 제주대학교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앞에는 다양한 인생 경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앞으로 보낼 대학생활이 여러분의 인생 경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대학생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새로운 도전과 비상을 시작하는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꿈과 비전을 세우고 창조적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꿈과 비전은 여러분의 미래를 이끍니다. 스마트사회를 이끌 창의력을 배양하면서 여러분의 꿈을 향해 도전하십시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분명 놀라운 역사적 발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목표를 향해 뜻을 올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글로벌화와 융복합시대에 필요한 글로벌 역량을 갖추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역이 될 미래사회는 경제적으로 국경이 사라지는 글로벌화와 산업·기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복합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인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과 외국대학에서의 학습 및 문화체험을 통하여 글로벌 시대를 이끌 리더십을 함양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글로벌 역량이 바로 경쟁력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들이 미래 리더로서의 인성과 통찰력, 그리고 통합능력을 갖고 닦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택할 전공 공부 이외에 역사·의식, 인문학, 자연과학 그리고 고전에 대한 폭넓은 학습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속적인 교육혁신을 통하여 폭넓은 교양과 전문지식, 체계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 그리고 리더십 함양에 교육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지키고, 체력을 강화하는 생활을 습관화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아직은 젊기 때문에 건강의 손상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정신적 스트레스나 지나친 음주와 흡연으로 젊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전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그리고 주기적인 운동이 건강하고 강한 체력을 만들어 줍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꿈을 성취하고, 좋은 가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과 가족 여러분!

그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소중한 자녀를 우리 대학교에 맡겨주신 믿음과 기대를 기억하면서 이들 모두가 이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돌보고 가르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독립된 인격으로 성장해 나가는 자녀들을 격려해주시고, 자녀들의 배움터인 제주대학교의 발전에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하며, 여러분의 새 보금자리인 제주대학교 캠퍼스에서 세계를 향해 비상을 꿈꾸는 청춘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25일

제주대학교 총장 허 향 진

제주대신문동우회, 원희룡 도지사 초청 간담회

이석문 교육감 이어 13번째 지성 간담회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연간 60명씩 연수를 진행해 관리인력들을 양성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앞으로 모든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 도민 경제 기여에 대한 의무를 잘 생각입니다.”

제주대신문동우회(회장 김범훈)가 2월 26일 제주시 아스타호텔에서 주최한 제13회 제주지성 초청 간담회에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의 기회와 도전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 모색’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발전에 있어서 도민들이 주인으로서 어떻게 주도권을 갖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다”면서 “단순한 호텔이 아니라 마이스, 헬스, 미용, 해양레저 등을 유치하면서 이같은 대형 개발투자가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행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관광협회나 관광공사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도내 업체들과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진행해 투자자와 관광객들이 지역경제에 맞물리게 행정의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문교 제주대 4·3 평화재단 이사장, 고유봉 제주대 총동창회장, 김동주 한라대 초빙교수, 김건일 한라일보 사장, 김현철 제주도 소통정책관 등과 동우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1954년 창간한 제주대학교 신문사 출신 회원으로 구성된 제주대신문동우회는 1976년 5월 창립때 그동안 모교 발전 사업과 대학신문 지원을 위한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회보 발간 등의 사업을 펼쳐왔으며, 매년 한 차례 제주지역의 리더를 초청, 제주지



2월 26일 제주대신문동우회 주최로 열린 제13회 제주지성 초청 간담회에서 김범훈 동우회장이 원희룡 도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성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장정언 전 국회의원,허향진 제주대 총장, 이석문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김범훈 회장은 “간담회는 그동안 제주 현안을 공유하며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한 공론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펼쳐 제주사회 발전을 위한 지혜를 집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건기자

2016학년도 제1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노대원(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조교수

△학사 : 서강대 국어국문학과, 신문방송학과

△석사 : 서강대 국어국문학과(현대문학)

△박사 : 서강대 국어국문학과(현대문학)

△최종 학위 논문명 : 마음의 신체화 양상에 관한 인지 서사학적 연구 - 1960-70년대 질병-치유 서사를 중심으로



도경탁(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공학부) 조교수

학사 : 충북대 축산학과

석사 : 충북대 농업생명공학협동과정(농업생명공학)

박사 : 부산대 생명자원응용과학과(생명자원응용과학과)

최종 학위 논문명 : Genetic Characteristics of Thoroughbreds using Genomics Analysis



김영아(간호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학사 : 전남대 간호학과

석사 : 전남대 간호학과

박사 : 전남대 간호학과

최종 학위 논문명 : 미용성형 부작용을 겪은 20~30대 여성의 경험



김진일(간호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학사 : 전남대 간호학과

석사 : 서울대 간호학과

박사 : 서울대 간호학과

최종 학위 논문명 : 항산화제가 시스플라틴에 의해 유발된 쥐의 뒷다리근 위축 경감에 미치는 영향



김대경(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조교수

학사 : 영남대 법학부 법학과

석사 : 경희대 법학과 민사법

박사 : 독일 뮌헨대 법학과 민사법

최종 학위 논문명 : Die dogmatische Untersuchung der Privilegierung des gesetzlich zum Rcktritt Berechtigten



장보근(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조교수

학사 : 서울대 의학과

석사 : 서울대 의학과(병리학)

박사 : 서울대 의학과(병리학)

주요학위 논문명 : Distribution of LGR5 + Cells and Associated Implications during the Early Stage of Gastric Tumorigenesis



김현정(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조교수

학사 : 한양대 의학과

석사 : 한양대 의학과(마취통증의학)

박사 : 한양대 의학과(마취통증의학)

주요학위 논문명 : 원위위 발바닥 열손상에 의한 열통각과민에서 뮤, 델타, 카파, 알파-2 작용제의 척수강내 투여 효과



강현식(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기금조교수

학사 : 제주대 의학과

석사 : 제주대 의학과

주요학위 논문명 : Effects of the novel compound DK223 on migration and proliferation of human keratinocytes and primary dermal fibroblasts



박은정(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기금조교수

학사 : 건양대 의학과

석사 : 성균관대 의학과(내과학)

박사 : 성균관대 의학과(내과학)

최종 학위 논문명 : Pregnancy outcomes in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A retrospective review of 62 pregnancies at single tertiary center in Korea



진상욱(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기금조교수

학사 : 경희대 의학과

석사 : 경희대 의학과(내과학)

박사 : 경희대 의학과(내과학)

최종 학위 논문명 : Investigation of Responsiveness to Thyrotropin-Releasing Hormone in Growth Hormone-Producing Pituitary Adenomas.



송성욱(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기금조교수

학사 : 제주대 의학과

석사 : 강원대 의학과(응급의학)

최종 학위 논문명 : Butylscopolammonium Bromide does not Provide Additional Analgesia when Combined with Morphine and Ketorolac for Acute Renal Colic.



고명주(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기금조교수

학사 : 단국대 의학과

석사 : 단국대 의학과(진단방사선과학)

박사 : 단국대 의학과(영상의학)

최종 학위 논문명 : A validation study of intravoxel incoherent motion of differentiating between hypervascular and hypovascular brain tumors



전경현(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기금조교수

학사 : 중국 길림대 법학과

석사 : 서울대 법학과(상법)

박사수로 : 서울대 법학과(경제법)

최종 학위 논문명 : 중국 상장회사 독립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아시아 명문대학에 걸맞는 교무행정 구현 교수 역량 향상과 학생 교육만족에 최선

인터뷰 박성진(미술학부) 교무처장

▶취임소감은.

“우리대학이 주창하는 것은 ‘아시아의 명문, 세계의 중심’이다. 이 패러다임은 총장님이 제시하는 대학운영 방침이자 대학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교무처는 우리대학이 ‘아시아의 명문’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무처장에 취임하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역대 교무처장 및 교직원들께서 지금까지 쌓아온 기존의 교무행정 업무를 바탕으로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적절히 조화시켜 나갈 것이다. 취임하면서 다짐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대학 구성원간의 소통과 실천이다. 대학 구성원들과의 소통 속에서 교무처가 앞으로 대학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고, 앞으로 해나갈 것인지 해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또 소통을 통해서 교무처의 방향이 설정된다면 그에 따른 실천이 중요하다. 임기동안 소통하고 실천하는 교무처장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교무처의 역할은.

“교무처는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민하는 곳이다. 교수의 질 높은 교육이나 연구 분위기를 잘 조성해서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교무처가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다.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교수의 역량 향상과 학생 만족이 중점이 돼야 한다. 교육의 질이라는 것이 결국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에 기반한다. 학생들이 만족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에 교무처에서 교육 환경 조성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수의 교육·연구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그것이 교무처의 최대의 목표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미래의 지성인들을 길러내는 진정한 아시아의 명문으로 거듭날 것이라 믿는다.”

▶앞으로의 계획은.

“임기가 2년이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기존에 교무처에서 역점을 두고 진행해오던 사업을 중점으로 행정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대학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국책사업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유는 재정적인 압박으로 인해 모든 부서가 예산을 20% 삭감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정적인 문제 극복 또한 교무처장으로서 고민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그렇기에 기존 행정 업무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 구성원에게 한마디.

“대학은 학생들이 최고의 주제가 되고 그 다음에 교수, 직원 등의 대학의 구성원들과, 행정적인 요소로 이뤄진다고 본다. 이 3가지 요소가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고 서로가 버팀목이 돼 주길 바란다. 급변하는 대학환경 속에서 입학정원이 해마다 급격히 감소하고 대학교조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일수록 대학 구성원 간의 신뢰와 이해가 절실하다. 대학구성원 간의 신뢰구축과 갈등조정 또한 교무처가 힘써야 할 업무라고 생각한다. 교무처장으로서 대학 구성원간의 소통과 신뢰구축에 힘쓰겠다.”

김정희 기자



휴게 및 회의 위한 공간마련에 노력 외부재원 유치해 장학사업 확대

인터뷰 김희철(무역학과) 학생처장

▶취임소감은.

“7년 전에 학생부처장을 2년간 맡았었다. 이번에 학생처장을 맡게 돼 감회가 새롭다. 학생처는 학생복지, 입학자원유치 관련 업무 등 학생들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곳이다.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앞으로의 임기 동안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대학이 더 발전할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 학생처장님들이 잘 해오셨지만 이 전보다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앞으로의 업무추진은.

“학생처 업무를 검토하면서 평소시 생각한 것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생처장은 사회봉사센터장까지 겸직한다. 그래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들을 많이 확대할 계획이다. 거점국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의 봉사문화 확산에 앞장서야한다. 임기 동안 중점을 둘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장애학생들을 위한 복지이다. 지난해 우리대학이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20위권에 진입했다. 이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진정한 명품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들을 비롯한 학생복지의 대대적인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학생들의 캠퍼스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불편한 캠퍼스 시설을 개선하고자 한다.”

▶학생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은.

“학생복지는 학생처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다. 학생들을 위해 추진할 업무들을 크게 4가지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는 학생들을 위한 휴게실, 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학교시설을 둘러보니 이런 공간들이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 중인 제3도서관에 휴게실 및 회의 공간을 확보할 생각이다. 둘째는 학생식당의 이용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저녁식사를 하고도 학교에 남아 공부할 수 있도록 배식시간을 1시간 정도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학생회관에 있는 매점, 카페에 더 다양한 품목을 배치하도록 건의해볼 생각이다. 셋째는 장학금 제도에 대한 개선이다. 인건비, 강사료 등이 인상되면서 장학금 수준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신 총장님과 협의해 외부재원을 끌어오도록 노력하겠다. 또 공·회합빌레이 장학금 사업도 적극 참여하겠다. 끝으로 건강센터가 노후화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산부족으로 전례는 무리지만 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 안정실은 리모델링을 추진할 생각이다.”

▶장애인 학생을 위한 복지는.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30조에 따르면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현재 우리대학에는 장애학생을 돕는 근로장학생들이 고용돼 있다. 시급한 문제인 만큼 올해 안에 책임지고 전문인력 배치에 힘쓰겠다. 또 장애학생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가질 생각이다. 무엇이 불편하고 필요한지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만남의 장을 계획하겠다. 장애학생들의 편리한 캠퍼스 생활을 위해 우리대학을 둘러본 결과, 외국어교육원에 승강기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올해 안으로 승강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학생들에게 한마디.

“학생처장으로서가 아니라 교수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학생들이 꿈과 목표를 가졌으면 한다. 인생을 살면서 꿈과 목표가 없는 것은 방향성이 없는 삶을 사는 것과 같다. 부모님이 바라는 삶이 아닌 스스로가 성취감을 느끼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다. 대학시절의 열정을 자신의 꿈에 쏟아 붓길 바란다.”

김정희 기자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준비에 만전 자기주도적 변화 있어야 대학 발전

인터뷰 양덕순(행정학과) 기획처장

▶기획처장으로 4년의 임기를 보내고 재임명 됐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갈수록 우리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맞게 대학이 변화와 혁신을 하지 못하면 발전은 없고, 퇴보할 수밖에 없다.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기획처가 있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다.”

▶올해 기획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가장 먼저 추진할 사업은 국책사업유치와 대학평가에서 좋은 실적을 받는 것이다. 올해도 등록금 동결, 입학정원감축 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재정이 어려워지다보니 학생들에게 가야할 혜택들이 많이 줄어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대학의 책무이다. 때문에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국책사업이다. 작년에는 CK-1사업으로 40억원, 지역선도대학사업으로 15억원, 대학혁신사업으로 9억3000만원의 국책사업비를 정부로부터 받았다. 올해도 국가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새로운 국책사업들을 반드시 유치하겠다. 둘째로는 대학이 변화하지 않고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대학의 각 부서가 자기주도적 혁신을 도모하는 문화를 만들겠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사업은 흔히 만학도라 불리는 새로운 입학자원을 대학이 수용하기 위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정책이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 또는 은퇴 후 다른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대학에서 공부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는 현행 강의식 수업만이 아니라, 출석수업과 온라인수업이 동시에 이뤄진다. 한 학기에 6학점 정도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과 병행할 수 있다.”

▶교육대학 이전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2008년에 교육대학이 통합됐지만, 사실상 캠퍼스가 분리돼 있는 상태다. 이로써 행정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대학공동체 형성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운영해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JNU 원캠퍼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 허가를 받기 위해 연구보고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4월께에는 보고서가 완료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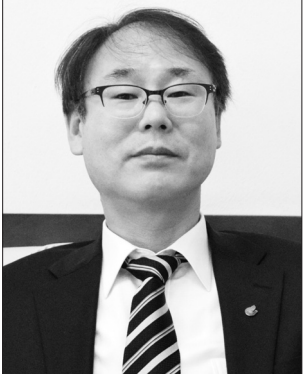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우리대학이 B등급을 받았다. 다음 대학교조평가를 위한 준비상황은.

“2주기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평가에는 A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주기 대학교조평가들 통해 지적됐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대학혁신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평가를 넘어서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 추진해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 학교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알리는 의지가 부족하다. 또한 교수님들은 연구실적과 같은 성과에만 관심을 가지는데 해 안타깝다. 학생들이 우리대학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졌으면 한다.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김이래 기자



Post - LINC 사업 유치에 총력 교육 및 연구분야 투자 성과 높일 것

인터뷰 서일교(건축학부) 산학연구본부장

▶취임소감은.

“중차대한 변화의 시기에 본부장직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산학협력단은 연구력과 산학협력 강화라는 목표를 향해 그동안 많은 성장을 해왔다. 산학협력은 특성화, 구조조정, 경쟁력 등 현 시대의 큰 영향력을 미치는 키워드와 깊이 연결돼 있다. 또한 최근에는 취업과 창업까지 확장되므로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변화를 긍정적인 동력으로 삼아 열심히 하겠다.”

▶산학협력단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은.

“산학협력단은 LINC사업단, CK-1 특성화사업단 등 대학 내 사업단들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 및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의 R&D관리뿐만 아니라 인재양성 및 기술사업화 활동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사업단에서는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학생들의 현장실습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식과 기술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기술이전센터를 두고 있다.

산학연구본부에서는 대학의 연구진흥의 활성화를 교육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간 약 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E-저널 구입 및 통계패키지 사용을 위해 약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내 연구진흥을 위한 학술연구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결국 산학협력단은 학내구성원들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사업단들이 실시하는 주요 사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산학협력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가장 먼저, 올해 LINC사업이 철수함에 따라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을 내용으로 하는 Post-LINC 사업을 본격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산학협력 선도학 성과포럼에서, 지난 4년간 LINC사업이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올해부터 Post-LINC사업을 기획할 것이며 비이공계 분야로 산학협력 확대 및 고도화된 산학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것을 밝혔다. 유치를 도모하고자 교내 주요 사업단들과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도모하겠다.”

▶지원 사업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저조하다. 홍보방안은.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공학교육혁신센터의 트랙교육과정, LINC 및 CK 사업과 연계한 현장실습 등 여러 사업들은 각 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홍보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다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홍보를 계획하겠다. 우선, 현장실습 및 트랙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겠다. 또한 제주대신문을 비롯한 학내의 언론과 연계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임기 동안의 포부는.

“무엇보다 교육 및 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와 성과를 높이겠다. 연구경쟁력을 높여 대외 과제 유치 확대 및 성과확산을 이루겠다. 교원업적평가 등 제도적 측면도 세심히 관리해 우리대학 교수님들과 공감하는 변화를 이뤄내겠다. 협력단 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며, 효과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겠다. 마지막으로 기업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 밀착형 산학협력단을 구성하겠다. 이를 위해 구성원들과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할 것이며 산학협력의 허브로 키워나가도록 하겠다. 지켜봐 달라.”

백승규 기자



양질의 일자리 취업에 앞장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 확대

인터뷰 홍희숙(의류학과) 취업전략본부장

▶취임소감은.

“우선 취업전략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교육의 연장선에서 학생들의 취업을 도와줄 수 있는 보직이란 점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 2년의 임기 동안 즐겁게 일하며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군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올해 취업전략본부의 사업 방향을 큰 틀에서 설명한다면.

“우선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등 그동안의 교육 프로그램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활성화를 시킬 것이다. 이번에 유지한 고용노동부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피부에 와닿는 체계적·포괄적인 시스템을 통해 취업·창업 지원에 도움을 주겠다. 대학 내부로는 취업전략본부, LINC사업단, 창업지원단 등 취업·창업 지원 조직을 아우르는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동시에 고용 관련 각종 정부·지자체 정책 연계와 외부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해 일체적인 취업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취업률을 보면 남자의 평균은 전국평균보다 조금 낮고 여성 취업률은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평균에서 남학생 취업률이 조금 낮게 나온 것은 아쉽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적인 상황 등 자체 원인 분석과 함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여대생 취업률의 경우 취업전략본부내 여대생커리어센터 운영을 통한 여대생 특화 프로그램 효과를 본 것 같다. 앞으로도 여교수 멘토링, 여대생진로탐색과 커리어설계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 또한 여대생 개인별 커리어 개발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눈에 보이는 취업의 수치는 좋아지고 있으나 취업의 질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선 우리학교 학생들은 타 지역의 기업보다는 주로 제주지역에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제주지역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대학 졸업생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사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인지도가 높은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교사임용, 공무원, 법률, 회계 등의 전문직 취업만큼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제주지역 투자기업 등과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취업처 확대 발굴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향후 기업탐방이나 현장실습이 제주지역은 물론이고 육지의 전문직 기업들과 더 많이 연계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방안들을 모색하겠다.”

▶끝으로 대학구성원들에게 한마디.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서 지역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취업전략본부 또한 단과대학에 있는 취업지원관과 학생들의 면대면 만남 기회를 활성화하고 책임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군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김해건 기자



외국인 유학생 1000명 증가 시킬 것 재학생 400명은 해외대학에서 공부

인터뷰 강영훈(행정학과) 국제교류본부장

▶국제교류본부장으로 6년간의 임기를 보냈다.

“6년을 역임하고 한번 더 중책을 맡게 돼 부담감을 느낀다. 본부장을 역임하는 동안 학생들의 큰 사고 없이 해외교류수학 등을 보내서 정말 고맙다. 이런 점들이 국제교류본부에 대한 신뢰로 바뀐 것 같다. 국제업무에서 믿음의 중요시 된다는 점에서 총장님께서 한번 더 일을 맡기신 것 같다.”

▶국제교류본부의 목표는.

“3월을 기준으로 유학생은 780명 정도 될 것 같다. 임기 동안 유학생수를 1000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400명 이상의 학생을 해외 대학으로 파견하는 것이 계획이다.

해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두 가지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우리학교는 중국인 유학생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렇기에 첫째는 중국에 치중하고 있는 유학생 모집을 유학생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권을 대상으로 분산시켜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활동하겠다. 둘째는 제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잘 관리해 입소문을 내려고 한다.”

▶구체적인 전략을 소개한다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앞서 언급한대로 중국 이외의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 활동을 펼칠 생각이다. 학생 해외 파견과 관련해서는 올해 새로 신설되는 제주도청 지원사업인 진리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될 것이다. 해외파견 학생수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학생 관리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생각인가.

“최근 유학생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유학생들의 학업, 한국생활 적응 등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학생 관리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교류수학생 또는 한국어과정학생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버디프로그램을 확대할 생각이다. 학부 신·편입생을 대상으로 1:1도우미 매칭 프로그램을 1학기부터 실시 할 것이다.

또한 단과대학과 협력해 유학생 단대별 지원 시스템을 운영 할 생각이다. 유학생이 많은 경상대학부터 실시해 학생들의 적응을 돕겠다. 이외에도 유학생들이 소외되고 있는 취업활동지원, 학습공동체 운영 등에서 유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하고 싶은 말은.

“현재 우리대학에서 약 400명의 학생이 교환학생으로 해외대학에 나가고 있다. 400명의 학생들이 국외로 간다는 것은 뒤에 그들의 부모님들이 제주대학 학생들의 국제화에 대해 허락한다는 얘기이다. 그만큼 국제화 필요성에 대해 많이 깨우치신 것이고 우리학교의 국제화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국제교류본부장으로서 아주 반가운 이야기다.

또한 해외에 나간 우리대학 학생들은 현지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바르게 생활한다. 이런 점이 대견스럽고, 나를 기쁘게 한다. 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고도 치고 문제도 많이 일으키지만 우리대학 학생들은 그런 점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자랑스럽다.”

김해건 기자



책임 경영·신 수의사업 자신감

인재양성관 조기 건립에 최선

인터뷰 임화순(관광개발학과) 경영사업단장

▶취임소감.

“경영사업단장으로서 학교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은 당연하고 원론적인 얘기이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학교발전이라는 것이 교육환경 조성, 인재 배출, 교수의 역량을 높이는 것 등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갖고 우리대학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경영사업단은 전반적으로 수의사업을 하고 있다.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떻게 수입을 발생시키고 지출을 할지 구체적인 지침의 필요성을 느꼈다. 보다 체계적인 운영지침을 만들어 사업단을 운영해 누가 보더라도 공명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영사업단의 역할.

“경영사업단은 수의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금을 모아서 관리하고 학교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이다. 경영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수의사업들은 학교시설 개선과 학생들의 질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비용을 수의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인재양성관 건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각종 국가고시에 도전하고 관심있는 학생들이 많다. 그런 학생들에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을 마련해주고자 한다. 현 음악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다. 공사는 올해 6월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9월 중에 개원할 계획이다.”

또 추진하는 사업 중에 기초·보호학문 육성 펀드사업이 있다. 이는 학생들이 기피하는 비인기학과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보다 더 확충할 계획이다. 요즘 학생들이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소위 인문계열 학과들이 소외받고 있는 상황이다. 학문을 탐구하는 대학에서 취업여부에 따라 비인기학과로 분류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어떤 대학은 비인기학과라는 이유로 학과를 폐지하는 사례도 있다. 우리대학에서만큼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할 생각이다.”

▶대학구성원에게 한마디.

“대학 구성원이라고 하면 학생, 교수, 교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대학구성원은 곧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가족끼리 서로 단결하고 협력해야 한다. 사업단에서 이런 경영 사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며 학교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대학구성원들이 잘 알아주었으면 한다.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의 일꾼이 되었을 때 학교 발전을 위해 도움이 돼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받은 배움과 혜택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학교발전기금에 보탬이 된다거나 후배양성을 위해 노력해줬으면 한다. 학생들이 본분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회에 나가 각각의 분야에서 우리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 역할을 담당해주면서 대학의 발전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경영사업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홍보가 잘 됐으면 한다. 경영사업단은 학교를 위해 존재한다. 학교를 위한다는 것은 결국 학생을 위해 일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학생들이 경영사업단과 학교발전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

김정희 기자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앞장

교육프로그램에 많은 관심 가졌으면

인터뷰 홍성철(의학과) 평생교육원장

▶취임소감은.

“우리대학은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평생교육원 사업이다. 그런 측면에서 평생교육원은 설립 목적에 맞게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잘 운영돼 왔지만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평생교육원의 역할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우리대학은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서 제주도민들의 평생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임무가 있다. 대학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공간과 시설이 확보돼 있고 그것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지역민들이 대학시설을 이용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대학이 제주도민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대학재정에 조금이나마 일조하는 것이다.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대학재정이 어려운 만큼 평생교육원이 작은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지금껏 평생교육원장들이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에 대한 일종의 복지라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개설돼 있다. 예를 들어 음악, 미술, 체육 등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다. 그러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 같다. 저렴한 가격에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교직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추진할 사업은.

“평생교육원은 크게 사업이 3가지다. 많은 강좌를 개설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제주도나 제주시 위탁사업도 맡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예전과 다르게 평생교육원에서 스마센터 운영을 하고 있다. 스마클럽이 제주도의 마산업 육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 중에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이 있다. 이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전선으로 뛰어난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평생교육원에서도 이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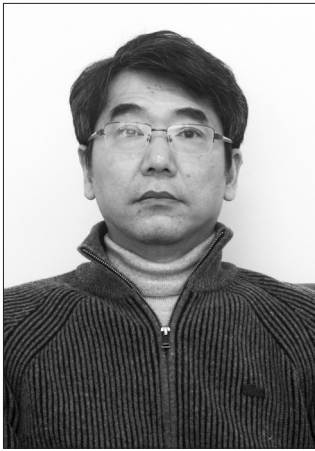
▶평생교육원의 현안과 과제는.

“일반강좌를 듣는 수강생이 연간 3000여명 정도이다. 수강생 수가 적지 않은 만큼 강좌수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평생교육원 건물이 협소해 많은 수강생을 수용할 수가 없다.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대학의 역할 중 하나인만큼 평생교육원의 시설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평생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평생교육원에는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설돼 있다. 요즘은 평생교육 시대이다. 아직 우리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모르고 있거나 공부를 주저하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평생교육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으니 언제든지 환영한다. 또 교육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취미활동 예를 들어 예술, 체육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유익한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많다. 학생들이 이런 정보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만큼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정희 기자



정론직필 사명감으로 건강한 여론 형성

대학 정책·업무는 항상 감시와 비판 필요

인터뷰 김치완(철학과) 신문방송사 주관

▶취임소감은.

“역량있는 전문 중간교수님들에 이어 신문방송사를 책임지게 됐다. 임기동안 잘 이끌어나가기야 한다는 생각에 무한한 책임감이 앞선다. 신문방송사의 역할인 올바른 정보의 전달, 여론의 형성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평소 신문방송사에 대한 견해는.

“대학 내에서 신문방송사는 정확한 정보전달, 여론형성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동안 신문방송사는 충분히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한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8~90년대에 비해서 활성화가 떨어져 있다고는 점이다. 학내문제를 다룰 때 사실 전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학생기자들이 교내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더 나아가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신문방송사가 추구해야 할 점과 하지 말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

“신문방송사는 독자들이 기사를 읽고, 스스로 판단하고, 여론을 형성 할 수 있도록 항상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보도해야 한다. 이 점은 학생기자들이 잊지 않고 명심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할 점은 ‘중구상급’이라는 사자성어에 잘 드러나 있다. ‘중구상급’이란 여러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인다는 의미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언론의 역기능을 경계하는 말이다. 잘못된 보도로 만들어진 여론이 어떤 특정 기관, 개인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끼칠 수도 있다. 여론을 전달할 때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학내보도에 있어서 비판할 것과 칭찬할 것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와 정당한 평가에 입각함으로써 중립을 지켜야 할 것이다.”

▶신문방송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예전 같지 않다.

“요즘 학생들은 학점, 장학금, 취업 등 개인적인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그러다 보니 학내나 사회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젊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을 꿀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요즘 학생들의 상황에서 연대책임을 가지고 정의를 외치기에는 지금의 사회가 너무 각박하다. 적어도 대학 내에서만만큼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당국과 신문방송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의 2년은 재선총장의 2기 시점이다. 2년 동안 학내의 여론을 전달하거나 선도하는 신문방송사의 주관으로서 지나간 것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맞이할 총장 선출과정에서는 신문방송사가 대학 내 형성된 여론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대학언론의 위기라는 상황 속에서 학생기자 자원과 예산 부족 등의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싶은 말은.

“펜은 칼만큼 위험하다. 잘못 쓰면 휘두르는 사람도 다치기 때문이다.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사도 펜을 다루는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김해건 기자

대학구성원 중심 서비스 행정 실현

에너지 비용 절감에 최선

인터뷰 전진석 사무국장

▶취임 후 4개월이 지났다. 소감은 어떠한가.

“20년 전 공직을 시작할 당시 처음으로 발령 받은 곳이 제주대학교였다. 우연찮게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뒤 첫 발령 받은 곳이 제주대학교다. 나와 제주대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다. 마치 고향으로 되돌아 온 기분이다.”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안은.

“우리대학 뿐만 아니라 모든 국립대학들이 재정문제와 거버넌스 등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동시에 대학은 학생들의 취업문제, 교수들의 연구역량 향상, 복지문제 등에 관한 대책도 제시해야 할 임무를 지닌다. 우리대학이 이러한 일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을 효율화하고 행정서비스를 고도화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겠다.”

▶대학재정이 줄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대학재정이 매년 줄고 있다. 그 중 다른 대학보다 우리대학은 실질등록금의 수준이 타 대학보다 낮은 편이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더 어렵다. 그래서 재정확충을 위해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첫째는 외부자원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재정 지원사업에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시설사업비 등의 확보를 위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필요성을 설명하고 재원확보를 할 것이다. 또한 졸업생이나 도민 등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는 내부자원의 효율화다. 작년 에너지이용 예비 점검결과 비효율적 사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매년 에너지 비용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 금년에는 에너지 사용 절감 목표를 정하는 것으로 시작해 점차 구체화하겠다.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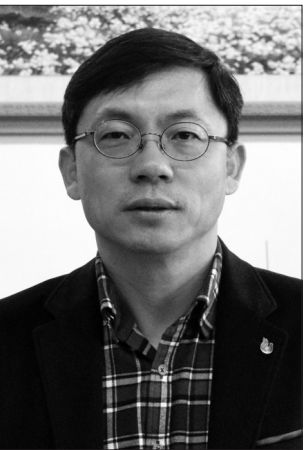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은.

“가장 먼저 내실있는 시설사업 추진으로 교육환경개선을 이루겠다. 작년 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생대 2호관을 리모델링해 간호대학의 보급자리를 만들었다. 올해도 농생대 1호관을 리모델링하고 석면을 제거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우리대학의 도서관은 타 국·공립대에 견주어 봤을 때 보유도서, 규모 면에서 협소하다. 이에 따라 130여억원을 들여 2017년까지 중앙도서관 증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셋째는 최근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기숙사의 신축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공사중인 2차 BTL기숙사가 금년에 조기완공되면 수용률이 20%로 늘어나고 올해 착공예정인 3차 BTL기숙사가 완공되면 30%까지 늘어날 것이다.”

▶구성원들에게 한마디.

“현재 대학들은 구조조정이라는 파도 속에 들어가 있다. 이 파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대학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작년 구조개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따라서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불평보다는 참여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변화에 쫓아가는 것은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수반한다. 우리대학 모든 구성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명실공히 ‘아시아의 명문, 세계의 중심대학’으로 우뚝 서기를 기원한다.”

김이래 기자



사범대학 특성화 교육 실천에 역점

교원양성기관 최상위 대학에 진입

인터뷰 오홍식(과학교육학부) 사범대학장·교육대학원장

▶취임소감은.

“사범대학은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산실로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능하고 창의적이며,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임기 중에 미래의 교사들에게 필요한 창의융합과 인성교육 과정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외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운영 지원에 박차를 가하여, 사범대학의 특성과 3대 과제를 실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사범대학 특성과 3대 과제인 창의융합·인성 교육, 정보화 교육, 국제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현재 창의융합인성 교육을 위해 다양한 창의·인성 관련 교과목의 개발과 이수 확대, 특수학교 현장 체제를 강화하는 등 사회봉사 활동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계획하고 있다. 정보화 교육은 정보 윤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및 활성화, 수업시연 동영상 자료 구축 및 서버 확보와 ICT 활용 교과목의 지속적 확대, 그리고 원격 화상강의 교육 시스템 구축 등 미래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화 교육은 외국어 강화 및 원어민 강의 확대와 외국대학과의 교류 활성화 및 내실화, 그리고 국제화를 위한 학내 여건 조성 등 예비교사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노력하겠다.”

▶교육대학원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은.

“교육대학원 입학생 대부분이 재교육을 위한 교사들이므로 수업이 야간에 이뤄지고 있다. 또 교사들이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한정돼 있어 충분한 수업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의 제5장 ‘연구과정’의 근거를 활용해, 연구생 과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잠재적 수요자들이 교육대학원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또한 연구과정 및 기존의 교육과정을 야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방학을 이용한 계절제를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집중형 형태의 수업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대학원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육대학원생들은 일선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이 자신의 절실한 수업능력과 전문적인 연구능력을 강화하거나 관련 학부생들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학한다. 교육대학원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이다. 강의실 환경개선, 수업기자재 확보, 교육프로그램 확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 또한 대학원생들을 위한 각종 공개세미나 개최나 외부인사 초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책을 요구하겠다.”

▶구성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사범대학 개교 이래 46년의 역사를 바라보는 2016년도는 그 의미가 각별하다. 사회는 구성원들의 사명감과 자긍심과 함께 우리가 지향하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교수, 직원, 학생 및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 전국 국공립대 교원양성기관으로 최고의 대학에 진입하기 위해 전력 질주한다면, 교원양성기관 최상위 대학 진입도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 확신한다.”

윤미래 기자



대학 정보화 경쟁력 확보에 노력

앞으로 수강신청시 오류 없을 것

인터뷰 이동철(경영정보학과) 정보통신원장

▶취임소감은.

“우리대학은 학교발전을 위해 CK(대학특성화사업), LINC(산학협력대학), 창업선도대학 등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29위에 도달하기도 했다. 또 대학 학력인원의 급격한 감소로 구조조정과 청년취업 문제와 같은 부분에서는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보 환경 역시 모바일화·IoT화(사물인터넷)처럼 급변하고 있다. 어떻게 대학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중대환 시기에 정보통신원장이란 중책을 맞게 돼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바일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홈페이지 확대 및 개편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학교에는 외국인 학생들이 상당수 재학 중에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다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용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겠다. 작년엔 K-MOOC 변환개발 사업에 계량경제학(강기춘 경제학과 교수)이 선정돼 변환개발 중에 있다. 3월 중에 K-MOOC사이트를 통해 서비스가 이뤄질 것이다.”

▶임기 중 우선시 할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 서버의 완전 다운은 아니었고 10여분 정도 속도가 느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안을 담당하는 장비 중 하나가 노후화된 탓이었다. 안타깝지만 당장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기에는 예산의 문제가 있다. 대신 지난 수강신청에서는 시스템 변경을 통해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해결방법으로 수강신청에 있어서 오류를 상당 부분 개선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속도와 보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한다.”

▶앞으로 정보통신원은 어떤 노력을 한 것인가.

“우선 학생 및 교직원들이 편리하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더 나아가 전산시스템의 고도화는 자체 예산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 사업에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러닝 수업을 보다 알차게 구성해 학생들이 면대면 수업을 듣는 것에 못지 않는 성과를 이루겠다. 또한 정보통신원은 제주도민과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K-MOOC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윤미래 기자



>> 원도심 일대 탐방

옛 도심 속 제주다움을 찾아서

찬란했던 천년 역사 자랑했던 제주읍성 일대 원도심… 인구공동화 현상 심각
무분별한 재개발이 아닌 과거의 흔적과 현대의 문화가 결합된 재생이어야

겨울이 점차 물러가고 있다. 올해는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 전체를 가둘 정도로 눈이 많이 내렸다. 찬바람도 쐬 새 없이 불었다. 하늘은 이렇게 흑독한 날씨를 견딘 제주에게 보상을 내린 것일까. 유채꽃이 만개하고 맑은 하늘이 모습을 비쳤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졌다. 도민과 관광객들 나나 할 것 없이 아름다운 제주를 만끽하기 위해 모여 들었다. 제주의 외모를 담당하는 풍경과 함께 천년동안 제주를 우직하게 지키고 있는 제주다움이 있다. 바로 ‘원도심’이다. 보존과 재개발의 기로에 서 있는 원도심을 기자가 방문했다.

◇제주의 역사를 품은 원도심

사실 구도심이 맞는 표현이다. 옛 시가지를 뜻하며 세월의 흔적을 나타내는 단어다. 다만 ‘구(舊)’라는 문자가 노후되고 낙후됐다는 부정적인 표현이라는 점 때문에 원도심이라는 용어가 탄생했다. 실제로 많은 도민들은 원도심 속 구제주보다 연동과 노형동 등 신제주 지역을 좀 더 발전된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원도심은 제주시 일도1동, 이도1동, 삼도2동, 건입동 등 옛 제주읍성 일대의 도심지역을 일컫는다. 역사학계에 따르면 제주성의 원도심 지역은 고려시대부터 현대까지 약 천년간 제주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을 활성화시킨 중심지다. 예로부터 제주성은 외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도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다. 또한 홍수로 산지전이 범람할 때마다 피해를 입는 도민들을 위해, 당시 정부는 간성 2문까지 증축했다. 탐라국 시대부터 성곽도시의 역사성을 지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제주성 근처에는 적지 않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관광자원이 있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주목관아와 관덕정부터 제주성지, 향사단, 오현단 등 제주의 속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즐비하다. 또한 각종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도 제주다움을 뽐내는데 한 몫 기여하고 있다.

◇찬란한 과거는 어디에

원도심은 제주 역사의 중추적인 심장부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신제주지역이 점차 개발되면서 원도심은 천천히 몰락했다. 관공서는 물론 자영업자들까지 새로운 터전에 자리를 잡기 위해 원도심을 떠났다. 행정과 경제, 심지어 교육까지 신제주로 뺀 원도심 지역은 인구가 점차

줄어들었다. 자본이라는 적이 너무 막강한 탓일까. 역사의 보루로서 가장 활성화돼야 할 지역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현연경(생활환경복지학부 4)씨는 “중학생 때 제주대병원 원이 중앙로 근처에 있어 자주 다녔던 기억이 난다”며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날 때 항상 중앙로가 만남의 장소였으나 요즘은 낯기도 했고 더 늘 곳도 많은 곳으로 눈을 돌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도심 지역이 점점 도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있음이 이제 실감난다”고 덧붙였다. 버스를 타고 제주시 중앙로 근처에 하차했다. 주말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한산했다. 하하호호 떠드는 여고생들이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영화시간에 늦은 듯, 서로가 불평을 하는 모습이 웃기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안타까웠다. 오직 미디어만이 그들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슬펐다. 선인들의 지혜와 생활 모습이 생생히 담긴 이 거리가 초라해 보였다. 그나마도 민들이 많이 찾는 곳은 동문재시장이었다. 다양한 제주 토산품과 더불어 저렴한 가격 탓에 인근 주민들이 애호하는 장소 중 하나다.

◇대표 관광지, 제주 목관아지와 관덕정

중앙로에서 5분 정도 걸었다. 제주 목관아지와 관덕정이 눈에 띄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대부분 관광객들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걷는 속도를 높였다. 제주 목관아지는 제주 목사가 직접 거주하며 관료들과 함께 행정을 처리하는 곳이다. 기법이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듯이, 목관아지도 여러 구조로 나뉘어 있었다. 건축물마다 설명문이 게시되어 있었는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설명도 준비돼 있었다. 그리고 목관아지를 패해 쳐 볼 수 있는 작은 박물관도 있었다. 이외에 많은 돌하르방과 갈굴 나무들이 제주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충분했다. 건축물 속에는 그 당시를 재현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는 모습의 인형이 있었다. 문화와 역사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지만 역시 도민들은 없었다. ‘제주도민 무료입장’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은 수줍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실제로 관덕정과 함께 목관아지를 관리하는 직원은 도민들보다 육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이 유적을 찾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수치도 제주의 자연 경관을 보기 위해 찾는 관광객 수보다 절대적으로 적다고 했다. 정문 옆, 유적과 함께 제주의 역사를 짚어주는 작은 건축물에 진입했다. 사람들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한 연표와 지도가 비치돼 있었다. 파괴됐거나 복원된 건물들의 수도 알 수 있었다. 목관아지를 나와 군사훈련을 담당했던 관덕정으로 접근했다. 유적지를 방문한 많은 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었다.

◇역사담은 벽화와 건물 그리고 예술인

다시 걸어서 동문시장을 지나 제주 성지 근처에 도착했다. 도로 옆에 강직하게 서있는 성벽은 내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지금도 이렇게 든든한데, 적들의 침입이 잦았던 과거에는 얼마나 의지가 됐을까. 익숙한 탓일까? 성벽 아래를 지나는 도민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목적지를 향했다. 셔터를 계속 누르는 도중 연세가 지긋한 할아버지께서 다가왔다. 목적을 밝히자, 원도심에 관한 일화를 말씀해 주셨다. 일제강점기 시절, 개발을 위해 원도심 일대 건물이 철거되고 있었다며 그 당시를 회상했다. 어렸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공부하면서 무너지는 역장을 감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일도동으로 진입하자 건물에 그려진 벽화가 눈에 띈다. 제주에서는 신천리의 벽화마을이 유명한데 이에 버금갈 정도로 아름다웠다. 주로 옛 제주의 모습과 선인들의 생활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한 제주의 자연 경관을 담은 곳도 있었다. 실제로 원도심에는 예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아이들이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더 걷다보니 또 다시 성벽이 나왔다. 역사적인 흔적과 생동감 있는 문화가 결합된 모습이었다. 이것은 개발이 아닌 ‘재생’이다. 낙후됐다고 무작정으로 바꾸지 않고 일보양보해서 맞춰간다면 아름다움이 배가 됨을 보았다. 해가 점점 질 때, 다시 철성로에 도착했다. 아름다운 선율이 귀에 들린다. 탐라문화광장 앞에서 기타를 튕기는 연로한 노인이었다. 그는 제주 민요를 노래했다. 구경꾼들은 많지 않았으나 모두가 노인의 목소리에 빠져 들었다.

◇꾸준한 관심과 사랑만이 유일한 대안

지난 1월, KT&G와 우리대학 취업전략



옛 제주의 행정 업무 처리를 담당했던 목관아지. 투명한 호수에 비치는 곳은 연회장으로 사용했던 우연당. 뒤편에 있는 건물은 절제사가 사무를 보던 홍화각이다(사진 위). 원도심 속 이도1동은 과거의 성벽과 현대의 도로가 서로 어울려져 보이지 않는 교류가 일어나는 듯 하다(사진 아래).



>>>

“제주 역사의 의미가 깊은 원도심… 방치하지말고 살려야 한다”

본부가 주관한 취업캠프가 강원도 춘천에서 열렸다. 캠프에서 ‘원도심 살리기’라는 주제로 조아영(언론홍보학과 4)씨가 발표했다. 그는 “원도심의 핵심 관광지인 관덕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민속마을을 조성해야 한다”며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촌처럼 배우들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조명으로 현재 어둡고 슬럼화 돼 있는 원도심 거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도심 자체가 제주 역사의 의미가 깊어 죽어가도록 방치하지말고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작정 재개발을 하는 것이 아닌 역사를 간직한 채 새로운 탈바꿈을 하자는 주장으로 들렸다. 제주도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16년도 도시재생공모 근린재생형사업’ 부문에 선정돼 2020년까지 5년 동안 200억원을 받는다. 오로지 원도심을 재생하기 위한 예산을 받아낸 것이다. 최선의 대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다. 즉 도민

들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실제로 우리대학 탐라문화연구원에서는 제주가 인문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사업에 동참하기도 했다. 많은 예술인들도 원도심으로 이주하며 터전을 재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시가 발전되고 확장되면서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좁은 땅에 묻혀 있다가 개발로 확산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나, 역사까지 내팽개치고 있다면 문제다. 번듯한 고층 건물과 신세대의 건축물이 매력적이라는 이유로, 혹은 시간이 흘러 후손들이 낡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살았던 터전을 훼손한다고 생각해 보자. 기분이 좋지는 않다. 투명한 바다를 배경 삼아 자신의 모습을 담아내는 사진 촬영만이 여행이 아니다. 분위기는 좋은 레스토랑에서 만끽하는 식사만이 역시 여행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선인들의 생활 터전을 걸어보자. 역사를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글/사진=백승규 기자



교수시론



김현구
해양의생명과학부 석좌교수

“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고

큰 꿈을 가지고

폭넓은 독서를 지향하며

관포지교의 우인을 얻고

청춘의 마음으로 충만해라

”

신입생 여러분의 선택을 축하합니다

제주대학교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 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제주대학교 를 선택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BCD라고 합니다. 태어나서(birth) 죽을 때까지(death) 수많은 선택(choice)을 합니다. 내가 이순(耳順)이 넘은 나 이에 서서 뒤돌아보면 두 번의 큰 선택 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입생 여 러분처럼 대학을 선택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배우자를 선택한 일이었습니 다. 우리 인생은 이 두 가지의 선택 이 외에도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며 큰 꿈을 가져라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의 아픔과 사랑의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란 것이 내가 정취하겠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날 나도 모르게 갑 자기 와 있고 또 온다는 것입니다. 어 썬면 사랑은 숙명처럼 오는지 모릅니 다. 여러분에게 사랑이란 것이 들어 오면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면서 큰 꿈 을 키워가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큰 꿈을 꿀 수 없습니 다. 꿈은 클수록 좋습니다. 미국의 해 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니미츠 소위는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 사랑하는 애인 으로부터 대장 계급장을 선물 받았습 니다. 그가 큰 꿈을 갖고 사랑하는 마 음으로 군인의 업무에 충실하여 결국 해군제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신 입생 여러분!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 하며 큰 꿈을 갖기 바랍니다.

폭넓은 독서와 관포지교의 우인을 얻 어라

인생은 살아가면서 좋은 삶든 하고 많은 선택을 합니다. 위에서 인생은 두 번의 큰 선택을 한다고 했습니다. 대학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는 인생의 큰 선택은 여러분의 부 모님이나 선배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 면서 크고 작은 선택이 여러분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선택을 모두 여러분의 부모나 선배에게 자문 을 받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 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앞에 놓 인 술한 일과 문제를 선택하고 개척 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후회하 지 않고 좋은 선택을 하려면 간접경 험을 많이 해야 합니다. 간접경험을 얻는 데는 폭넓은 독서가 제일입니 다. 예로부터 남야수독오거서(男兒須讀五車書)라 하였습니다. 두보는 ‘모름지기 사내라면 수레 다섯 개 분

량의 책을 읽어야 한다’ 고 했습니다. 공자는 읽던 책의 끈이 세 번이나 끊 어졌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 외로움을 느낍니다. 고뇌에 찬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있고, 이를 토대로 운 명을 개척하고 일을 진행해야 합니 다. 우리는 힘들고 외로울 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실한 우인(友人)으로 부터 사랑이 담긴 충고를 받을 수 있 습니다.

여행을 떠나고 청춘의 마음가짐으로 충만하라

인생은 사랑을 찾아 떠나는 긴 여 행이라 합니다. 젊었을 때 여행을 하 며 시행착오를 겪은 경험은 신입생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삶의 나침반 역 할을 할 것입니다. 여행은 작은 인생 이기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여려분 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 가 됩니다. 나는 사랑하는 신입생 여 러분에게 ‘청춘’이란 시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Samuel Ullman은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이 아니라 마 음가짐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따 라서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은 청춘 의 마음가짐으로 갈고 닦아 큰 성공 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제주대학교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돌하르방



김 해 현
편 집 국 장

기자는 제주대학교 신문사의 편집 국장이며 예비 언론인이다. 대학에 처음 입학해 학생기자를 선택한 순간 목표는 정해져 있었다. ‘학생을 위한 기사’를 쓰며, 나의 기사로 누군가가 편한 대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2년의 시간 동안 학생 기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 생활 에 임했다.

그런데 최근 지인이 2016년 2월 신 문을 보고 “너희 신문에서 보던 기사 가 네이비에 치니까 똑같이 나오던데

같은 말 반복하는 앵무새는 싫다

그거 너희가 쓴거야?”라는 말을 전했 다. 평소 제주대신문을 관심 있게 읽 던 지인이어서 그런지 충격은 꽤나 컸다. 2015년까지는 좋은 기사가 많 다라고 칭찬했던 본인데 2016년이 되자 마자 쓴소리를 했다.

“여러가지 사정상 어쩔 수 없었다” 라는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나는 그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었 다. 우리가 쓴 기사가 아니고 보도자 료를 기사화한 것이기에 부끄러움을 느꼈고, 우리가 썼다고 말을 하기에 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2년간 의 학보사 생활을 하면서 그 순간이 가장 부끄러웠다.

내가 생각하는 대학신문은 학내의 언론기관으로서 진실된 보도를 담은 물론이고 자료들을 재창조해 독자들 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철 학이 무너져 버렸다. 지인에게 그 말 을 들은 후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지?’ 라는 스스로에 대한 의문 을 던지는 시간은 길어졌다.

21세기는 정보의 바다이다. 이 말 은 대학에서도 적용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취사선택할 수 있다. 물론 대학신문 의 역할 중 하나는 정보의 전달이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 한다. ‘누구를 위한 정보의 전달인가’ 라는 점이다. 학교에서 뿌 러지는 자료들은 대학신문 외에도 학 교 홈페이지, 친구들의 입소문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지역의 일 간지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매체 들과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같은 내 용의 기사를 작성한다면 독자들은 대 학신문의 역할에 대해 느낄 수 있을 까?

또 하나 기자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다. “학교 신문이 있 어요?”, “주변에 아무도 모르는데” 신문을 만드는 기자로서 처음에는 화 가 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말 의 뜻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학생들이 학교신문을 모른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어서도 맞지만 그만 큼 신문이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 했다는 소리다. 학교신문을 펼치면 나와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 같은 등 학생들의 무관심을 이끌어내기에 이 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도 사실이었 다. 대학신문이 역사를 기록해야 한 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독자가 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의 잘못 된 점을 비판하거나 흥미성 있는 기 사만을 채우자는 소리는 아니다. 목 소리를 듣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실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 학신문의 기자들이 변해야 할 것이 다. 학생기자들은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열심히 뛰어야한다 한다. 전화 한통, 클릭 한번보다 한번의 발걸음 이 독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 뉴스 가 세상을 보는 창문이라면 대학신문 은 학교를 바르게 내다보는 창이다. 학생기자들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앵 무새를 싫어하기를 기원해본다.

독자기고

수강신청 인더 트랩

김 인 영
관광경영학과 3

“57, 58, 59 ... 클릭!” 대학생에선 꼭두새 벽 같은 오전 아침 9시. 모두가 숙취이며 누 구보다 빠르게 마우스를 누른다. 끝없이 길 게 느껴졌던 기다림의 시간이 언제 있었나 는 듯 빠르게 클릭해가며 수강신청을 마무 리 짓는다. 0.1초의 차이에 한학기의 운명이 정해지고 수강신청자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필자는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수강신청에 실패했다. 딱 하나 성공한 전공과목을 보며 명하니 앉아있자니 회의감이 들었다. 우리 학과 학생수는 한 학년 당 80명 정도이다. 복 수전공, 전공생, 편입생 그리고 외국인 학생 들을 감안하면 한 학년의 수는 100명을 넘는다. 거기에 선배들이 함께 수업을 신청함으 로써 수강신청 성공의 문틈은 점점 좁아지 고 있다. 다행히 교수님의 재량으로 학생을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수님의 사인이 필 요하고 이를 위해 20명 뺑기에 200명이 모 이는 현상은 관광경영학과 전통처럼 내려오 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2015년 2학기부터 새로운 방식의 수강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Y-CES 라는 프로그램은 해외 대학교에서 시행되는 ‘마일리지제도’와 학년이나 전공 등 우선순 위로 결정짓는 ‘타임 티켓 제도’ 그리고 ‘대 기 순번제도’를 복합적으로 재구성 한 것이 다. 학생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마일리

지로 수강하고 싶은 과목에 배팅할 수 있다.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아직은 말미 좀 있지만 클릭의 속도로 정해지는 수강신 청 보다는 훨씬 합리적이고 공평해 보인다. 우리학교 또한 2015년부터 희망과목 담기가 시행됐다. 희망과목 담기의 근본적인 목적 은 시스템을 통해 인기 있는 과목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수업수를 늘리거나 다 른 강좌를 오픈하는 형태를 띄어, 되도록 많 은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것 도 근본적인 수강신청 문제를 해결하지 못 했다. 오히려 기존에 수강신청을 잘하는 학 생들 즉 손가락이 빠른 학생들에게 유리해 지기만 했다.

모든 학생을 만족시키는 수강신청은 불가 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파악하여 최소한의 공급을 맞춰 주는 것은 학교의 당연한 의무이다. 피 같은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니면서 원하는 과 목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돈을 내는 소비자 가 갑이 아닌 을이 돼버리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최소한 학생들이 듣고 싶은 것을 최우 선으로 듣게 해주려는 노력이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모두가 행복 할 수 있는 수강신청 제도가 우리 학교에서도 실행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중국에게 공생공존의 정신을 묻다

홍 진 혁
언론홍보학과 2

얼마 전 인도네시아 여행 중 티베트 망명정 부가 있는 다람살라(인도)에서 인연을 맺은 티베트 친구 ‘룬 상’에게서 안타까운 소식 을 들었다. 티베트 출신 10대 소년이 중국의 티베트 통치에 반발해 분신 시위를 하고 숨 졌다는 소식이었다. 한 때 나라를 잃었던 우 리에게 티베트인들의 이러한 행보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하지만 국제 사회가 중국 을 상대로 티베트의 독립을 정치·외교적 문제로 거론하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같은 아픔을 겪었던 우리나라도 티베트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실정이다.

원래 티베트는 청나라가 망하고 1913년 독립국의 지위를 얻었다. 하지만 1951년 다 시 중국에 강제로 편입된 후 중국과 티베트 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1959 년, 1989년 그리고 2008년 3차례 대규모 유 혈 충돌이 있고나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 졌다.

그렇다면 중국이 티베트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정치, 경제, 문 화적인 이유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체제(體制)유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중국은 한족 외에도 55개 소수민족으 로 이뤄져 티베트의 독립은 곧 중국 체제운 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 이다. 이 외에도 거대한 영토, 자원개발 문제

가 작용한다. 앞으로도 중국은 티베트의 독립을 받아들 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티 베트인들의 절규를 그저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태도에 달 려 있다. 사실 티베트의 정신적 지주인 달라 이 라마는 평화공존(和平共存) 노선을 추구 하고 있다. 즉 티베트의 완전한 독립이 아닌 중국 헌법 틀 안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보존 하고 계승을 보장받는 실질적인 자치를 요 구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중국이야 말로 티베트가 분리 독립을 원한다고 몰아 가면서 탄압을 위한 구실로 삼고 있다는 의 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중국을 미국과 함께 G2라 불리며 세계 최 대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그 명 성에 걸맞지 않게 무력에 의존하는 소수민 족 정책은 주변국, 국제사회로 하여금 눈살 을 찌푸리게 한다. 이처럼 중국에게 지금 가 장 필요한 것은 대외적으로 보이는 국가의 위상, 경제적 발전이 아니다. 더불어 살아가 는 공생공존(共生共存) 정신이다. 중국은 당장의 이익을 위한 신제국주의 야욕을 버 리고 ‘어떻게 공생공존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중국 이 국내 정치는 물론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 선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사설

계획이 없는 꿈은 그냥 꿈이다

많은 국내 대학생들이 가장 갖고 싶은 세계적인 인 물로 빌 게이츠와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를 꼽 는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구분법으로 표현하자면 빌 게이츠는 변호사 아버지를 둔 금수저이고, 이와 반대 로 미혼모 아들로 태어나 보통가정에 입양된 스티브 잡스는 흠수저이다. 서로는 오랜기간 라이벌 관계를 유지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공통점은 대학 중퇴라 는 점도 있지만 독서와 공부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바 꿔다는 점이다. 이들은 꿈을 꾸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창조적 시대정신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이론 만큼, 이루지 못한 것도 자랑스럽다는 스티브 잡스의 명언은 도전을 통해 거둔 성공도 자랑스럽지 만, 도전을 향한 실패의 과정도 자랑스럽다고 늘 말해 왔다. 지금은 자선재단 일만 전념하고 있는 빌 게이츠 는 ‘학교는 승자와 패자를 구분지 않지 않지 모르지만 사회 현실은 이와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주장 을 한다. 빌 게이츠는 잘 알려져 있듯이 하버드대학교 를 자퇴한 사람이다. 빌 게이츠는 대학교육의 한계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그 는 성공하고 싶으면 대학교육을 받아야 한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공부를 잘해야 높은 사람이 된다고 말하곤 했다. 대학은 사회에 나가기 전 지식뿐만 아니 라 그 외 많은 것을 준비해 나가야하는 시기이다.

요즘 서로 다른 부분 꿈을 갖고 캠퍼스 생활에 첫 발을 디딘 새내기들로 캠퍼스는 다시 활기를 찾고 있 다. 젊은 지성의 산실이며 꿈과 낭만의 샘터라는 캠퍼 스는 이미 스펙 쌓기와 알바로 진정한 배움이 사라지

고 있다. 대학입시 때문에 잠시 접어 두었던 새내기들 의 꿈들이 중·고교와는 달리 너무나도 많이 주어진 자 유와 자율로 산만해 보이기도 한다. 또한 많은 학생이 자신의 꿈이 명확하지 못하거나, 꿈을 갖고 있으나 계 획이 없는 대학생이 많다는 것을 학생과의 면담을 통 해 보았다. 간절하고 절실한 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꿈을 꾸고, 그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이 에 대한 열정과 두려움 없는 도전이 필요하다. 두려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낭비이다. 실패조차 꿈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실패를 했더라도 더 나은 방법으로 성공을 향해 도전하는 열정 이 필요하다. 다양한 경험은 창의력의 원천이기 때문 이다.

책을 한권 사는 것보다 깊게 사고하는 습관도 중요 하다. 토론을 통해 답을 얻고, 깊게 사고한 후 질문하 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또한 대학생활은 지적인 충전 도 중요하지만 먼 미래를 자기 자신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자기 계발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대학 생 활의 낭만’이라는 한 마리 토끼를 더 잡기 위해서 배 운 기타연주 실력은 미래의 직장생활에서 여러분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청춘인 새내기 여러분들은 늘 아프고 불안할 수 있다. 그 불안 해소는 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 우고 실행하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캠퍼스 내에 갇혀있는 생각이 아니라 넓은 세계를 향하여 꿈을 쫓 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 4년 이 됐으면 한다.

인사는 신뢰보다 원칙이 우선이어야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라는 말처럼 상투적 인 말도 없지만, 이 말이 등장하는 때가 만시지탄인 경우가 많아서 늘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다. 2월 20일 처, 본부, 단장 검토 임명을 시작으로 1일 부속시설의 장에 대한 검토 임명이 완료돼 우 리 대학 역사상 첫 재선 총장의 8년 임기를 갈무리할 진용이 갖추졌다.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새 보직자들 은 9대 총장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2년 동안 말 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나가는 것만으로도 그 몫을 다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선 총장의 8년 임 기 마지막 2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하면 지난 8대와 9 대 총장 취임사에서 제시하였던 비전과 목표, 발전방 안 등을 잘 마무리하여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것 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검토 발령 명단에서 유독 8대 부터 연이여 이름을 올린 인사들에게 눈길이 쏠린다.

2010년 8대 총장 취임사에서 허창진 총장은 “1년 가까운 총장 공백기를 거치면서 안팎으로 더욱 어려 워진 중차대한 시기”라고 규정했다. 4년이 지난 2014 년 9대 총장 취임사에서는 대학 내 안정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특성화 정책을 내세운 강력한 구조조정 요 구에 따른 대학 간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절박한 현실과 당당히 맞서겠습니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 인식에 따르면 이번 인사 에도 전장에서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 법이고, 구관이 명관이며, 한 번 쓴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대학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했다면 삼고초려해서라도 다시 맡기는 것이 옳

다. 하지만 과연 그 뿐일까? 『사기』「저리자감무열전」에서는 인사가 빛을 발 하려면 신뢰는 기본이지만 진퇴가 분명해야 함을 말 하고 있다. 위 문후는 중산국을 무너뜨리고 돌아온 악 양에게 그를 비방한 투서로 가득 찬 상자를 하사했다. 아들을 희생했지만 개신장군으로 특의양양하게 돌아 온 악양은 그 상자를 열어보고 “신의 공이 아니라 주 군의 힘이었습니다.”라고 머리를 조아렸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 아름다운 신뢰의 장면이다. 물론 위 문후는 중산국에서 벼슬을 하고 있는 아들을 둔 악 양을 등용할 때도, 악양이 중산국 도성까지 파죽지세 로 쳐들어가고서도 3개월의 시간을 끌 때도 악양에게 신뢰를 거두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다.

위 문후는 적국의 대표로 성문에 오른 아들과 담판 을 짓고 있는 악양과 그의 군대를 위해 상을 내리고, 아들마저도 희생해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악양을 포상했지만, 병권을 회수한 다음 다시는 불러 쓰지 않 았다. 비방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판단을 맹신하지도, 작은 공적 때문에 원칙을 무너뜨리지도 않았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 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위나라에 유리한 일이라면 그것을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 사에 대한 평(評)은 어떻게 해도 ‘시위를 떠난 화살’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까닭은 ‘아시아의 명문, 세계의 중심’을 향한 8년의 대장정을 잘 마무리하는 데 모두가 맡 은 역할을 잘 해주십사 하는 원칙적이지만 간절한 바 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자의 일상속속 - 오늘의 키워드 ‘NFC(무선근거리통신)’



NFC(무선근거리통신)의 발달로 블루투스를 이용한 음악듣기가 가능해졌다.

며칠 전 필자는 문득 서귀포의 바다가 보고 싶어 시외버스를 탔다. 버스 단말기 에 카드를 가져다 대는 순간 ‘처리되었습 니다’라는 한 여성의 울림과 함께 2800원 이 지불됐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버스카드 결제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돈이 없어 발을 동동 굴르던 기 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옛 생각에 잠겨 좌석에 앉아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용해 음 악을 들으며 목적지까지 도착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은 흔히 NFC 라 불리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덕분에 이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NFC는 13.56 MHz의 대역으로 아주 가까운 거리의 무 선 통신을 지원하며 현재 지원되는 데이터 통신 속도는 초당 424킬로비트라 한다. 게 다가 다른 기술에 비해 암호화 기술로 인 한 보안의 장점까지 갖추고 있다. 버스요 금 지불 용도로서는 안정맞춤인 셈이다. 최근 삼성페이, 애플페이, 안드로이드페

이, SSG페이, 카카오페이 등 흔히 핀테크 라 불리는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이 뜨거 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러한 핀테크 시장 에서도 NFC는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이러한 페이들은 모두 NFC기능 을 기반으로 결제가 이뤄지는데 버스요금 결제와 유사하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을 카드결제 단말기에 가져다대는 순간 결 제가 진행된다.

NFC의 간편성 덕분에 핀테크 시장의 규모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금융 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는 △2013년 2,345억달러 △ 2014년 3,530억달러 △2017년 7,210억 달 러로 그 규모는 가히 폭발적이다. NFC기능은 우리의 일상에도 깊이 침 투해 있다. 현관문의 도어락을 스마트폰의 NFC기능을 이용해 열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기능을 좀 더 활용해 집 내부의 사물들 을 밖에서 원격으로 조정하는 수준에 이르 렀다. 집 밖에서 보일러를 켜고 끌 수 있음 은 물론 회사에서 집에 있는 창문 여닫기, 에어컨 켜고 끄기 등 그의 활용 대상은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우 리들의 삶이 매우 편해졌다는 증거다. 반 면 집밖에만 나오면 잡그지 않은 가스밸브 에 초조해하던 우리들의 기억들은 이제 모 두 영영 추억으로 남을 것만 같아 아쉬움 이 크다.

김이래 기자

» 봉사와 교류의 길-아라해외봉사단 스리랑카를 가다

24명의 봉사단원들 2주간 구슬땀...“봉사·교류”정신 되새겼어요

아라해외봉사단, 스리랑카 카렌데니아 방문해 봉사활동
교육·노력·농업 봉사활동 통해 현지학생들과 우정 나뉘
일정이 종료된 후에는 학교측에서 이별식 열어줘

아라해외봉사단은 그동안 해외봉사활동 지역이었던 라오스, 베트남 등을 벗어나 스리랑카라는 새로운 나라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스리랑카의 수도인 콜롬보에서 남쪽으로 약 2시간 떨어진 카렌데니아 지역 센트럴컬리지에 24명의 교육·노력, 농업·기술 봉사단이 방문했다. 봉사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지주민들과 교류활동을 펼쳤다. 한 여름밤의 꿈 같은 경험을 한 이들과 동행했다. 편집자 주

◇타오르는 마음의 불씨

1월 13일 한국을 출발한 아라해외봉사단(단장 김광식 의학과 교수)은 중국 상해를 거쳐 14일 저녁 스리랑카의 수도인 콜롬보에 도착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습도는 한국에서 온 단원들의 피부를 금세 자극했다. 그 후 단원들은 2시간여 차를 타고 카렌데니아로 이동했다. 목적지까지는 현지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그들은 한국단원들을 반갑게 맞아주며 인사를 건네는 등 밝은 모습을 보였다. 처음 보는 현지인의 따뜻한 환대는 장시간의 비행으로 피로한 단원들의 얼굴에 미소를 띄게 했다.

봉사단 일정은 1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현지 주민들은 봉사자들의 방문을 기쁘게 반기며 환영식을 열었다. 카렌데

니아는 외국인의 출입이 드문 곳이다. 그런 영향이었는데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난생 처음 보는 이방인을 신기하게 구경했다.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Hi, Where are you from?”을 외쳤다. 단원들 또한 “Korea”를 외치며 웃음을 지었다. 환영식이 끝난 후 단원들은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건물 외벽 페인트 작업을 실시했다. 긴 장대에 물러를 묶어 벽을 칠하기도 하고 양손에 빗자루를 들어 먼지를 털어내기도 했다. 심지어 30도를 웃도는 기온이 단원들의 체력을 빠르게 빼앗았지만 이들은 최선을 다해 자신들의 일을 묵묵히 수행했다.

자칫 주는 사람만 즐거운 일방적인 페인트칠이 될 뻔 했으나 단원들의 활동이 재밌어 보였는지 학교가 끝난 학생들이 옆에서 일손을 자청했다. 일을 함께 하면서 학생들은 한국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국 드라마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한국노래를 들으며 흥얼거리기도 했다. 페인트칠 하나로 시작된 교류의 작은 불씨는 그렇게 조금씩 타오르기 시작했다.

◇교육봉사를 시작하며

교육·노력, 농업·기술 봉사팀의 메인 프로그램은 1월 18일부터 이뤄졌다. 교육팀은 두팀으로 나뉘 센트럴컬리지 8학년과 11학년을 맡았다. 8학년의 프로그램은 총 5일간

3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고 11학년은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교육팀은 수업을 위해 봉사를 가기 약 3주 전부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했다. 그 결과 8학년 담당팀은 양치질 교육, 위시트리 만들기, 탈·부채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11학년의 경우 망원경 만들기과 동·서양의 사고를 비교하고 이해하는 프로그램도 완성시켰다.

현지 학생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겪어보지 못한 수업방식에 놀라움을 표했다.

수업을 진행하며 단원들은 학생들의 수업 이해를 위해 몸짓과 표현 등 비언어적 표현을 지속적으로 이용했다. 스리랑카는 영어를 쓰는 국가이지만 8학년 학생들은 영어를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했다.

단원들은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키고 박수를 유도하는 등의 수업방식을 통해 동적인 수업참여를 유도했다. 학생들은 처음 보는 수업방식에 당황한 기색을 표하기도 했다. 수줍음을 많이 타고 자신감이 많이 부족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학교의 수업 분위기가 굉장히 정적이고 발표수업이 잘 이뤄져있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8학년 수업에 참여한 강현준(통신공학과 2)씨는 “한번도 해보지 않은 경험이어서 처음 수업에 들어갈 때 긴장이 많이 됐었다”며 “하지만 아이들은 우리를 반겨줬고 이후 긴장이 풀리면서 편안하게 수업에 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영열(원예환경전공)교수를 필두로 한 농업·기술 봉사팀 또한 현지학생들과 활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주로 한국의 농업기술을 전파했다. 또한 현지의 땅에서 어떠한 농업방식이 알맞는지 파악하고 현지인들에게



조언을 해줬다.

◇교권이 강했던 스리랑카

수업 외적인 부분에서도 학생들과 단원들의 교류활동은 여러 곳에서 이뤄졌다. 하루는 단원들이 수업을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일 때 현지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 단원들 한명한명을 포위했다. 그리고 펜과 종이를 내밀었다. 단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알고보니 자신들의 종이에 싸인을 해달라는 소리였다. 그렇게해서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싸인을 해주기 시작했다. 그 소식을 들은 현지 교장선생님이 싸인을 받으러 다니면 혼난다는 방송을 했고 그 이후로부터 싸인요청이 잠잠해졌다.

스리랑카의 교권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교장선생님의 멘트였다. 학생을 가르치는 한국의 훈육은 많이 약해졌지만 이 학교의 훈육은 아직 건재했다. 학생들은 지나가다 선생님의 손가락질 하나에 얼굴에 겁을 먹은 표정을 하기 십상이었다.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체벌의 문화가 심하다고 말했다.

방송이 있기 전까지 단원들은 평균 200여명의 학생들에게 싸인을 진행했다. 뜨거운 햇빛 아래서 싸인을 해주다보니 몇몇 단원들은 “한국에서 연예인이 싸인을 왜 안해주는지 알 것 같다”며 “이렇게 많은 싸인은 처음해본다. 힘들다”는 장난스런 말을 던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현지 학생들과 농구, 탁구, 크리켓 등 체육활동을 통해 교류활동을



수업시간에 만든 부채와 탈을 단원들과 학생들이 손에 들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위). 11학년 수업중 한화주(지리교육전공 3)씨가 동서양의 사고를 비교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아래).

진행했다.

◇이별을 고하며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라해외봉사단의 2주간의 봉사일정은 모두 종료됐다. 하지만 현지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단원들을 쉽게 보내주지 않았다. 짐을 정리하고 모였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이별식을 열었다. 교장선생님을 포함해 학생회장 등은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해외

봉사단의 단장인 김광식 교수는 “2주의 기간 동안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이별식을 마치고 단원들은 학생들과 마지막이야기를 나누며 2주간의 한여름 밤의 꿈 같았던 시간을 종료했다.

송유성(관광경영학과 4)씨는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는 걱정이 많았었다”며 “하지만 봉사활동을 진행하면 할수록 보람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야 학생들과 조금 친해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짧아 아쉽다”고 전했다. 김해건 기자

» 해외봉사활동의 보증수표인 부스활동

학생들의 동심을 읽을 수 있었던 시간

2주간의 해외봉사활동중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았던 것은 부스활동이었다. 아라해외봉사단원들은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포토프린터를 이용한 사진찍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하나, 둘, 셋” 활짝 소리와 동시에 단원들의 발길이 바쁘게 움직인다. 수십명의 학생들은 줄을 서 있고 두명의 단원이 사진을 찍고 곧바로 인쇄에 들어간다. 2015년 라오스 해외봉사활동에 이어 두번째 실현된 포토프린터를 이용한 사진찍기는 학생들에게 큰 인기였다. 마을 근처에 사진관이 있기는 했지만 학생들은 작은 기계에서 본인의 모습이 나오는 걸 보며 신기한 반응을 보였다.

고지연(간호학과 4)씨는 “생각보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아 힘도 졌었다”며 “하지만 사진을 받고 기뻐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고 말했다.

“딱, 딱” 옆 부스에서는 딱지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단원들은 한국의 전통놀이인 딱지의 도안을 가져가 즉석에서 오려준 후 학생들에게 딱지를 선물했다. 처음 보는 놀이에 당황한 학생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친구들과 내기를 하며 딱지를 넘겼다.

다른 한쪽에서는 풍선아트가 진행됐다. 단원들은 학생들에게 풍선으로 강아지, 칼 등을 만들어주며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외에도 꽃, 글씨 등의 모양을 그려주는 페이스 페인팅과 테니스공을 이용한 다트놀이도 진행됐다. 약 200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시간이 흘러 모든 부스활동이 종료됐다. 마지막에는 학생들에게 한국에서 준

비한 공책, 글라이더, 학용품 등을 나눠주기도 했다.

현은지(초등교육학전공 3)씨는 “부스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동심을 읽을 수 있었다”며 “우리의 작은 노력과 맘으로 학생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다는 사실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순간순간이 너무 즐거웠다”고 말했다. 김해건 기자



강현준(통신공학과 2)씨가 학생들에게 부스활동 프로그램인 딱지치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스리랑카 어린이들은 호기심 어린 얼굴로 딱지치기에 큰 관심을 보였다.

"어둠 속의 등불."

"시대의 길잡이."

"세상을 보는 눈."

'언론'言論

진실의 펜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손 끝에서
일만아라의 목소리가
시작됩니다.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자격요건
1학년 또는 2학년 학부생

지원방법
제주대미디어(news.jejunu.ac.kr) 커뮤니티 > 알림에서
입사지원서를 내려 받아 출력 및 작성 후 신문사에 제출

제출기한
3월 31일(목) 오후 6시까지

활동혜택
장학금과 취재수수료, 원고료 등 활동비 지원
취재사진 교육 및 해외원정 취재 기회제공

지원문의
010 8916 0309
제주대신문사 편집국장